

## 취업모의 사회적 지원과 심리적 복지와의 관계

안 선 희\*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전공 조교수)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맞벌이 가족은 이제 특별한 가족의 형태가 아니라 규범적인 가족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가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일하는 어머니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나 제도가 미흡한 현 상황에서 이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다.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특히 자녀양육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제시되며, 부모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죄책감 때문에 취업모의 심리적 복지감은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이나 복지는 남편이나 친인척의 도움 등의 사회적 지원망이 존재할 때 높아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취업모가 받는 사회적 지원이 실제로 심리적 복지와의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남녀 유아의 어머니 210명이었다. 심리적 복지는 생활만족도와 우울의 두 요인을 측정하고, 사회적 지원으로는 남편의 육아도움, 시·친정 부모나 이웃과 친구, 직장상사나 동료들의 지지나 도움을 어느 정도로 받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질문지는 자료 수집기관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의 협조를 얻어 담임교사를 통해 유아 편으로 부모에게 전달하고 수거하였다.

본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 취업모의 심리적 복지는 보통보다 약간 높은 편으로 나타나 비교적 긍정적인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남편, 시·친정 부모나 이웃, 직장으로부터의 도움을 받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남편이나 친인척으로부터 받는 도움은 보통정도보다 다소 높게 평가하였으나 직장상사나 동료로부터 받는 지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취업모의 심리적 복지상태는 자녀양육에서의 남편의 도움( $r = .53, p < .01$ ), 시(친정)부모나 이웃의 지원( $r = .39, p < .01$ ), 직장의 도움( $r = .19, p < .01$ )을 받는 정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으로부터 받는 자녀양육의 도움, 시댁이나 친정 혹은 친구나 이웃으로부터 도움, 직장상사나 동료들의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평가할수록 취업모의 심리적 복지 점수가 높았다. 취업모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원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친정 부모나 이웃의 지원과 남편의 도움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자녀양육에 대한 도움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전체 변인의 설명력은 32%이었다.